개발자로 커리어쌓기 행사

막학기인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개발자로 커리어쌓기 라는 외부행사를 발견하였고, 등록하여 참가했었다. 강연자는 네이버에서 네이버앱개발을 담당하는 분이셨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이력을 관리 하는 방법에 관하여 배웠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자의 역할임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이력

-> 만든 것은 성과가 아니다

-> 어떻게 / 왜 만들었는가?

-> 본인 참여율이 중요

-> 사용한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별도로 정리

->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한 것에 집중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는 지금까지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이 git에만 올리기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경우 한직장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닌 이직에 관해서도 염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팁도 많이 얻었다. 이직에 관한 팁은 다음과 같다.

-> Linked-in을 통해 헤드헌터들과 접촉

-> 약 10여 가지의 이력서 양식을 확보

-> 30여 가지의 조합으로 이력서 양식 개선

-> 영문 이력서도 작성

-> 여러 회사를 지원하면서 탈락한 곳과 통과한 곳

-> 2가지 버전을 상시 비교/수정

-> 분기 별로 이력서 최신화

아직 취업을 해보지 않아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먼 미래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듣게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들을 충고해주었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다. 요즘 취업준비를 하느라 힘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들로 어느정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강연자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주었다.

1. 세상을 구하는 개발자가 되려한다

-> 세상을 구하는 개발자는 없다.

->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이 많다.

2. 너무 뽑히고 싶은 마음에 '을' 행세를 한다.

-> 자신의 자존심까지 구기면서, 매력을 없애지 마라

3. 대기업에서 시작하고 싶어한다.

-> 네임벨류, 연봉보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해라

-> 경력이 더 중요하다.

전혀 생각해 본적도 없는 문제여서 더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자소서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서류통과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아직까지 면접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면접에도 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필요한 이야기 였다. 강연자는 면접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면접

면접관과 나의 첫 만남

과정 : 인사, 소개, 질문

목적 :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생각해보면 소개팅과 같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을 소개팅에 비유하여 어떻게 하면 뽑고 싶은 지원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면접관의 말을 끊지 말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

성실한 답변 속에 내가 가진 기술력 어필

개발 실력 자랑보다 그것을 이용해 만든 성과

못 다한 말이 있지만 내 말만 하기보다는, 다음을 기약

어떤 기술을 사용했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말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해봤고 할지 하는지에 대한 나열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왜 했는지?

디자인 패턴/알고리즘 적용

메모리 관리/예외 처리

내가 이력을 어떻게 설명할지?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

나의 기여도 -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을 할 때, 면접관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형상관리, dependency 관리, 주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플랫폼 언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다.

개발자는 working code는 당연한 것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동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면접에서 배운 지식들을 지금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면접에 통과하기 위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력 보유

모두 실제로 해보고 깊은 단계까지 숙지

무엇보다 면접도 많이 봐야 실력이 향상

우리 팀과 얼마나 어울리는 사람인지 중요

실력과 성격 모두 중요

면접에서 앞서 다음을 준비해야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의면접 해볼것

긴장을 없애는 것이 중요 -> 회사의 규모를 따지지 말고 실제로 면접을 많이 볼것

회사를 지원했으면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소프트웨어 등) 무조건 써볼것

면접의 시작부터 끝까지 포기하는 뉘앙스나 힘들다는 내색하지 말것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가늠하는 자리

->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사교적이고 시원한 모습

이렇게 면접에 앞서 필요한 스킬들과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면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들을 위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회사에 취업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 배워라

이전 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

레거시 코드 이해하기

회사 업무 프로새스

유관부서와 협업 방식

조직이 운영/관리되는 원리

직장은 '또 다른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다.

데이터 캐싱을 통한 속도 개선

app slicing을 통한 앱 사이즈 감소

DB 중복 데이터 제거를 통한 DB 사이즈 감소

인식 애니메이션 공통화를 통한 재사용성 제고

업무 외

명함 많이 쓰고 다니자

그리고 업무 이외의 이야기도 들었다

연봉 협상

'연봉 협상'이라고 부르지만 통보하는 시스템

대부분 연봉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결정권자에게 어필해도 소용없다.

애초에 자신이 회사에서 없어서 안되는 존재임이 증명되면 편하다.

그래도 끊임없는 자기 성과 어필은 필요

궁극의 연봉 협상은 결국 이직

이직 준비

이력서 쓰기

링크드인, GitHub

자신의 업무 실적을 정리(어떻게, 왜)

자기 기술력을 정리

이직하고 싶은 회사의 채용공고 속에 키가 있다

면접

면접은 보는 회수에 비례해서 실력이 항상

그리고 이직을 위한 이력서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경력직 이력서는?

경력사항과 프로젝트 이력이 중요하다.

이력서는 최소 분기별로 업데이트

자신의 핵심 기술력 요약정리 필수

프로젝트는 최신 순으로 정리

자신의 참여도와 기여한 점을 중점적 정리

경력은 프로파일링, 스터디, conference를 통한 신기술 적용 등은 필수 어필

회사에서 성과라 생각하는 부분을 도출

신기술 스터디 및 공유, 적용

소스를 개선(메모리, 속도, 버그 등)

지식의 깊이를 나타내는 전문용어 사용

개발 툴과 협업 도구를 활용한 조직적 개발 프로세스 경험

해결책은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와 동일하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분석해야 한다.

채용공고 속에 뽑고 싶은 인재상

필요역량/지격 요건

회사가 원하는 기술

무조건 100% 부합해야 서류 통과

우대사항/우대요건

실제 소속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

사용하고 있는 기술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이와 같이 채용공고를 분석하여 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후에는 연봉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다.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는지도 모르겠다.

연봉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면접의 마지막 단계

실질적인 연봉 JUMP

주의할 점!

절대 면접에서 자신의 희망 연봉 발설 금지

협상 단계에서도 희망 연봉은 말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회사의 처우를 듣고 말해야한다.

HR 담당자 or 연봉 결정권자 에게 0000 만원이라고 제시 받아야 그때 말을 해야 한다.

희망 연봉 < 회사 책정 연봉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콜을한다

합격자 입장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하기 힘든 상황

어렵게 성공한 이직이 연봉 협상에서 실패

연봉도 오르고 이직에 성공했지만 찜찜한 기분

희망연봉 > 회사 책정 연봉

회사에서 희망연봉을 깍으려고 시도

이미 나의 희망연봉은 높아진 상태

회사와 합격자 모두에게 상처만 남김

입사해도 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만 구축

회사에서 먼저 제시한 금액의 +a를 제시

면접 결과에 따라 연봉을 결정

자신이 면접을 잘 봤다면 어렵지 않은 단계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연보이면 입사 거부

지금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쓰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지만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 몰랐다.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기회로 무언가 크게 달라지지도 얻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배우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나아가 방학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하여 하반기에는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





